

행복한 금요 편지

아내와 친구로 살기

배 학¹⁾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오랜 직장 생활 뒤에 무한의 자유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히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처음 얼마간 아내는 남편에 대한 배려로 자신의 호불호를 접어두고 남편의 선택을 따른다. 일종의 '양보'이다. 산으로, 들로, 모임으로, 영화관으로, 관광지로... 그러나 정말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닌 이런 배려와 양보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서로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아내는 서서히 본심을 드러내고, 나는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된다.

"30여년의 긴 세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온 끝에 얻은 확실한 결론의 하나는 '우리 부부는 대부분 서로 안 맞는다는 것'이다. (중략) 이렇게 서로 맞지 않으면서 지난 30 여년을 어떻게 함께 살아왔을까 하고 생각할 때도 많다."

(‘사람으로 아름답게 사는 일’, 박범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박작가가 똑같이 하고 있다.

그는 아내와 안 맞는 것을 31 가지까지 찾아내어 글로 썼다.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자며 겪는 자질구레하지만 중요한 차이들이다. 그 중 내가 공감하는 예를 들면,

- 아내는 국수, 만두 같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데 나는 밀가루 음식이 주식일 수 없다.
- 아내는 튀김류를 좋아하고 나는 담백한 나물을 좋아한다.
- 아내는 과일을 좋아하는데 나는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 아내는 독주를 선호하고 나는 독주는 공짜로 먹으래도 싫다.
- 아내는 폭신한 쿠션의 침대를 좋아하고 나는 그런 데서 자면 허리가 아프다.
- 아내는 러브스토리를 좋아하지만, 나는 영화든 연극이든 러브스토리를 극도로 싫어한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영화관가서 각기 서로 다른 영화를 보고 나오기도 한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배학 정책위원님은 현재 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전 한미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주)티맥스 소프트 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 아내는 아이들의 장점을 보고 나는 단점을 본다. 그래서 아이들 문제로 싸우는 일은 평생 반복된다.
- 드라이브를 하면 아내는 물가로 가자고 하고 나는 숲으로 가자고 한다.
- 차를 타면 나는 음악을 듣기 좋아하는데 아내는 한사코 오디오를 끄라고 야단이다. 한도 끝도 없다.

"우리 부부의 경우, 서로 안 맞는 걸로 말하자면 100까지 가는 건 물론 200까지 가는 건 식은 죽 먹기처럼 쉽다. 그 대신 맞는 건 참 적다. 백번 다시 생각해도 아내와 나는 헤어져야 옳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다. 30 여년 간 살아온, 잔인할 만큼 서로 잘 맞지 않는 아내하고 앞으로도 30 여년은 더 살아야지 하고 생각한다. 가급적 함께 죽어야지 하고 생각할 때도 있다. 오래 함께 살면 서로 안 맞는 건 오히려 많아지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는 않는다. 그런 게 인생이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 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랬더니 그 중 한 친구는 "나는 1,000 가지 중에서 아내와 안 맞는 것이 998가지이고 딱 2 가지만 맞는다. 그 단 2 가지는 우리 둘 다 빵을 잘 먹고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밥 해먹기 싫으면 둘이서 빵하고 커피마시며 산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각자 따로이다"라고 너스레를 떠다.

나의 경우도 정말 만만찮다. 나는 추위를 타고 아내는 더위를 못 참는다(같이 자는데 어려움이 매우 크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아내는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혼자 영화 보러 가기도 한다(그렇다고 박작가 같이 영화관까지 같이 가서 각기 다른 영화를 보기까지는 않지만) 아내는 나보다 친구와 여행하기를 더 좋아한다. 건강을 위해 내가 하는 운동과 아내가 하는 운동은 완전 별개이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붙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데도 우리 부부는 별 문제없이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셈이니, 원래 부부란 나이 들면 이렇게 사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남들은 다들 어떻게들 사는지)

토요일 아침 일찍 아내는 딸애와 함께 동네 수영장에 가고 나는 빵과 계란 프라이, 주스로 혼자 아침을 챙겨먹고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대모산 입구로 간다. 내 달에 나는 친구들과 여행을 갈 참이고, 아내도 친구들과끼리 매달 모아둔 돈으로 여행 간다고 며칠 전부터 이것저것 챙기고 있다.

아내도 이제 내 친구 중의 하나일 뿐이니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기대하는 것이 적으면 아내도 편안하고 나도 편해질 것이다.

한산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